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교사가 본 난이도는...

“문제 평이... 중위권은 체감난도 높아”

국어·영어영역 대체로 평이 수학 중간 난이도 까다로워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불수능'으로 불린 지난해와 달리 평이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다만 수학 등에서 중간 난도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중위권의 체감 난이도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불수능' 논란에 중심에 섰던 1교시 국어영역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고, 9월 모의평가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독서 영역의 제시문 독해가 다소 까다로워 변별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2교시 수학영역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중간 난도인 '중킬러' 문제가 전년보다 어려워 중위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주범 제주제일고 교사(수학)는 "킬러문제인 20번과 21번, 29번, 30번의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보다 낮은 반면, 3점과 4점짜리 '중킬러' 문제들의 난이도가 높아



수험생들은 2020학년도 수능 난이도와 관련, 비교적 평이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희만기자

졌다"며 "상위권 학생의 경우 별 문제가 없었지만 중위권의 경우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3교시 영어영역도 지난해보다 대체로 쉬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석준 제주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교사는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 지난해 수능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이 5.3%였지만 올해 수능에선 6~1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

다봤다. 4교시 탐구영역으로 생활과윤리와 한국지리를 선택한 한 수험생은 "앞서 치렀던 모의평가보다 까다롭게 출제돼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온라인 홈페이지 전용계산을 통해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수능일

부터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이다. 평가원은 19일부터 25일까지 접수된 이의 신청을 심의해 오는 25일 오후 5시 정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능 성적은 오는 12월 4일 각 수험생들에게 통보된다. 성적통지표에는 원점수가 아니라 영역·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한국사와 국어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나온다. 김지은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15일 금요일 음 10월 19일 (11월)

기상정보



맑음

제주도는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아침기온은 5-9℃로 평년보다 3-4℃ 가량 낮을 것으로 보이며 찬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낮 기온은 17-18℃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0% precipitation probability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해질, 달짐, 물때, 간조, 만조, 간조, 만조. Shows sunrise/sunset and tide times.

주간예보

Table with 3 columns: 내일, 구름 많음, 12/22℃, 모레, 흐리고 비, 15/23℃.

생활·안전 기상정보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Values are 관심 and 보통.

기상청 "일교차 커 건강관리 주의해야"

제주지역은 당분간 큰 일교차를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제주지역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5-9℃, 낮 최고기온은 17-18℃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의 경우 평년보다 3-4℃ 낮은 것이다. 기상청은 15일과 16일 제주지역은

계속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아침에는 지표면 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낮에는 일사로 인해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4℃, 낮 기온은 21-22℃로 예상되는 등 이날도 일교차가 10℃ 가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상민기자

경찰·모범운전자회 숨가쁜 '수송작전'

수험생 66명 가까스로 입실 성공 저혈당 쇼크 온 학생 병원서 시험



경찰이 오토바이로 수험생을 수송하고 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입실 시각에 쫓긴 제주지역 일부 수험생들이 경찰과 모범운전자회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을 치렀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이날 오전 도내 수험생 66명을 순찰용 오토바이와 순찰차, 차량 등으로 시험장까지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쯤에는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한 수험생이 경찰의 도움으로 입실 마감을 3분여 남겨놓고 무사히 남주고등학교 고사장으로 입실했다.

택시가 잡히지 않아 당황하는 수험생의 모습을 본 경찰은 싸이카 2대를 동원해 한대는 막힌 통행로를 확보하고, 나머지 한대는 이 수험생을 태우고 고사장으로 이동했다.

또 오전 7시45분부터 8시 사이 자치경찰단의 도움으로 입실 시각에 쫓긴 수험생 11명이 신청여고, 남녕고, 제주고 등 고사장에 무사히 도착하는 등 이날 하루 총 66명이 경찰과 모범운전자회의 이송 지원을 받고 시험을 치렀다. 특히 신분증을 집에 놓고 온 한 수험생은 자치경

찰의 도움으로 고사장에서 수험표를 전달 받아 시험을 치렀다.

이날 제주지역 제6시험장인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던 한 수험생은 저혈당 쇼크 증세로 병원에서 시험을 보기도 했다. 집을 나서기 전부터 건강에 이상을 느껴 119의 도움으로 시험장을 찾은 이 수험생은 저혈당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장학관과 감독관, 경찰관을 대동해 병원에서 수능을 치렀다.

한편 영어영역 듣기평가가 시행되는 이날 오후 1시5분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35분간 시험장 주변 소음을 통제하기 위해 응급 차량 경적이 자제됐고, 항공기 이착륙도 전면 중단됐다. 이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할 예정이던 국내선 24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됐다. 이상민기자

자치경찰 취객 처리위해 1일 59건 출동

올해 주취 민원 1만6217건 해결... 전체 3만8453건 접수

자치경찰단이 112 전체 신고의 30% 이상을 처리하면서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자치경찰 제3차 확대 시범운영에 따라 지난 1월 31일부터 도 전역에 자치지구대 3개소(산지, 연동, 서귀포자치지구대)와 자치파출소 4개소(함덕, 한서, 서부, 신산자치파출소)를 운영하며 112 신고 55종 사무 중 12종을 처리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12종 사무는 청소년, 주취자, 보호조치, 기타 경범, 교통불편, 교통위반, 상담문의, 분실습득, 소음, 노점, 서비스, 위험동물 등이다.

자치경찰단 112 신고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까지 전체 112 신고 출동 중 자치경찰은 3만8453건(31.6%)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4272건, 하루 140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체 신고는 주취자 41.5%(1만6217건), 교통불편 16.1%(6319건), 분실습득 10%(3944건), 교통위반 6.9%(2692건) 순인 것으

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5, 7, 8월 행사·휴가철에는 신고가 급증하면서 5월의 경우 전월대비 22.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취자 신고인 경우 1일 평균 59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가 1만9484건으로 전체 신고의 절반(49.8%)을 차지했다.

또 2019년 하반기부터는 112신고 현장 도착 시간 단축을 위해 112 지령 시 '우선출동·이후확인' 인식 개선을 통해 관서별 신고다발 지역·시간대를 분석하고 순찰차를 선점 배치, 현장 도착시간을 2019년 상반기 8분46초에서 하반기 6분55초로 1분51초 단축시켰다.

한편 제주의 경우 연간 음주자 중 고위험 음주율은 2018년 전체 20.5%로 전국 19.1%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50대(25.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2019년 상반기 제주시권 1개소(한라병원) 서귀포시권 1개소(서귀포의료원)에 근무자를 배치해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Advertisement for NPS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featuring a group of people and the slogan '100세 시대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90년대생이 더 큰 믿음을 담겠습니다'.